

코메니우스의 범교육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비판적 재조명*

김 남 순**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요 약》

코메니우스는 그의 저서 범교육론에서 인간은 누구나 신분·신체적 특성 등에 무관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고 다양한 학습자들이 함께 상호협력과 모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교육은 이러한 보편적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 법 규정의 제정, 혁신적인 교수-학습의 방법을 모색하여왔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들이 함께 동일한 장소와 내용으로 교수-학습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아동들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하며, 상호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서로 모방학습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 범교육론, 통합교육, 세계대회, 대교수학

1. 서 론

1. 문제의 제기

1) 통합교육의 정의와 문제점

특수교육에서 주장하는 통합교육에 대한 시각들은 다양하다.

Hanna & Lang(1950)은 통합교육의 목표를 기준으로 교육목표가 완전히 통일된 것으로부터 자연 생물체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 모든 학습자들의 생리적 조건과 생활내용과 방법에서 통합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Dunn(1968)은 장애아동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통합 팀(진단, 임상, 치료, 상담 전문가들과 관련된 교사들)에 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일반학급에 편성된 특수교육필요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 해 주는 것"으로 정의 하였고, Wolfensberger(1972)는 모든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문화적으로 바람직

* 이 논문은 2005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nskim@chosun.ac.kr)

한 행동과 성격특성 등을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문화적 규범 내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Rueda, Gallego & Moll(2000)은 재구조화된 학교교육환경은 학습초기부터 다양한 학생들이 통합된 환경을 중시하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Halvorson & Neary(2001)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동일한 생활연령의 학급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개별화교육계획(IEP)에 따라 특수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Friend & Bursuk(2002)는 특수교육필요 아동들의 능력에 기초한 통합된 교육으로써, 신념과 철학을 강조하는 통합교육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분명하다. 즉 장애인들이 어떤 차별을 받지 않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학교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한 학교교육은 공동의 학습목표와 공동의 교수-학습과정과 환경을 가지는 일이며, 어떠한 장애도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때문에 그러한 통합교육을 실행하기에는 수많은 걸림돌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국의 통합교육에 대한 문제점들도 다양한 시각에서 지적되고 있다.

“물리적인 수준의 통합에 머물고 있다(박승희.1999, 윤점룡.1997, 김남순.2001)”는 지적으로부터 “장애학생을 일반학교에 취학시키는 것으로 통합교육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단순한 물리적 통합은 교육의 포기라고 보아야 한다(권요한. 이만영(2002))”는 지적도 있다. “통합교육에 있어서 교육과정 편성의 문제(권요한.2001)”, 일반학급에 통합된 장애학생의 수업의질 향상을 위한 교수적 수정의 문제(박승희.1999)“, “통합교육 단위교육비산출의 문제(김남순.2001)“, “대부분 일회성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교사가 실행하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서울 경인 특수학급 교사연구회편. 21)”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 코메니우스의 범교육론

사실 이러한 통합교육에 대한 사상들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신을 무조건 인간이 추종하는 중세를 벗어나면서 시작되었고, 더욱이 인간의 이성, 현실, 습관과 경험 등이 중요시 되면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한 주장의 하나로 코메니우스(John Amos Comenius:1592-1670)를 들 수 있는데, 그는 1631년에 출간된 “언어입문(Janua Linguarum Reserata)”을 시작으로 1632년의 “대교수학(Didactica Magna)”등을 저술하면서 인간성 개발을 위한 범 교육론을 통해 모든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이숙중.1995). 그는 감각적 실학주의의 입장에서 직관을 강조하였고, 언어와 사물에 대한 지식을 병행하는 교육, 아동들의 본성에 알맞은 교육을 강조하였다(정영수.1998). 그러한 교육을 실현하기위해서 학교교육의

방법을 혁신하고 飛躍化·能率化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구체적으로 연령과 아동의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학년별, 월별, 일별, 시간별로 편성된 教材를 만드는 등 구체적인 교수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집단교육의 중요성과 실천방법에 관한 내용을 강조한다. 즉 가정교사에 의한 개별교육보다 학교의 집단적 교육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더 많은 즐거움과 유익함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그러한 집단은 인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유아기와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와 청년기로 나누어 감각교육으로부터 모국어교육 그리고 상상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 한 것이다. 학교훈련 과정은 모방을 강조했다. 많은 아이들은 교사가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 오히려 또래 집단들의 행동과 언어를 모방하면서 스스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코메니우스의 교육이론은 통합교육과 많은 부분에서 합치되는 방법이고 내용이며, 이러한 이론은 보다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실현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범교육론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보편적인 기술”이라는 의미에서, 통합(inclusion)교육에서 중시하는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선택과 결정에 따른 참여의 권리등과 유사한 내용이다. 즉 범교육(pampaedia)이란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교육, 가르쳐야 할 모든 것을 체계화한 범지학, 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보편적인 기술로서의 자연주의 교수법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이란 무릇 사람을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가르칠 사람과 가르치지 않아야 할 사람을 구분 하지 않는 것이며, 때문에 장애와 비장애, 정신지체와 신체장애등의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구분에 따라 교육대상을 선별하지 않는다. 가르쳐야 할 모든 것이란 곧 인간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이다. 코메니우스가 말하는 소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합리적인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준비하고 도움이 되는 모든 내용들이다.

범교육(pampaedia)에서 주장하는 교육은 대상에 따라 어떤 차별을 하지 않으면서 보편적인 교육내용을 체계화하여 보편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따라서 코메니우스의 범교육은 통합이 주장하는 모든 아동들에게 각자 학습자들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과 매우 유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통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코메니우스가 주장하는 인간의 발달과정을 과학적 시각에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 단계를 구분해야하고, 학습집단은 동료교사 혹은 상호모방을 통한 학습을 강조함으로써 통합교육에서 중요시하는 모방학습이 효과적임을 이미 지적 한 것이다. 물론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은 현대적 시각에서 볼 때, 보편성이나 일반화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개개인의 독창성이나 자발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 자연과학의 기본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인간을 위한 교육의 원리를 추출하지 못하였다는 점, 인간의 발달 단계를 고정적으로 6년 단위로 나누었다는 점 등이 비판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정 건영,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은 인간은 교육의 대상으로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며, 교육은 각각 학습자들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각자에게 적합한 교육방법과 내용을 선정하여야 하며,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한 단계로 구분하여 학습하도록 하고 모방을 통한 학습이 강조된다는 입장에서 통합교육의 사상을 크게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메니우스가 주장하는 범교육론 사상은 향후 한국의 통합교육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하며 그러한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코메니우스가 주장하는 범교육(pampaedia)을 바탕으로 한국 통합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연구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코메니우스의 범교육사상과 내용 및 그 배경을 알아본다.
- ②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고 보편적인 교육내용이어야 한다는 코메니우스의 주장과 통합의 가치와 내용간의 관계를 알아 본다.
- ③ 코메니우스의 범교육(pampaedia)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통합교육의 문제점과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을 범교육론, 세계도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선행연구 들을 분석하며, 한국의 통합교육에 관해서는 통합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참고문헌 등을 조사한다.

II. 통합교육적 시각에서 바라본 코메니우스의 범교육사상

1.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

1592년 3월 현 체코공화국의 모라비아 지방에서 태어난 코메니우스는 헤르보른대학과 하이델베르크대학 등에서 공부한 뒤 조국으로 돌아와 형제교단(Unitas fratrum)이 설립한 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신·구교 간의 30년 전쟁(1618~1648)으로 조국이 멸망되고 그 후 독일황제의 체포를 피해 다니다가 1670년에 네덜란드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전쟁과 같은 갈등과 싸움이 없는 평화 공존의 인류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인간성을 가르치는 교육뿐이라고 믿고, 사람마다 흥미를 가지고 철저하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교수법 개발에 몰두했다. 그는 언어교육을 할 때 사물을 동시

에 제시하는 세계 최초의 시청각 방법을 고안했으며, 인간을 지성적, 도덕적, 신앙적 존재로 해석하고 인간의 전인성은 곧 인간의 내면세계에 내재하고 있는 지·정·의 즉 지성과 덕성과 경건의 씨앗을 계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숙중.1995). 그가 주장하는 범교육(汎教育)사상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자연의 원리에 의한 ‘모든 방법’으로 배움 받아야 한다는 우주적 보편 교육사상이며, 이는 통합교육의 기본 철학이고 이념과 같은 것이다.

2. 인간관

코메니우스는 성서적 입장에서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지만 합리적이고 우월한 이성적 존재임을 강조한다(안건상. 1985).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연의 일부이고 조화를 이루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자연의 모든 사물과 독특하게 구별되는 정신 혹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자신과 보다 광대한 세계 속에 산재해 있는 지혜의 寶庫들을 관찰할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헤아릴 수 없는 창조력과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이성과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 인간은 지혜를 통하여 내면세계에서는 지식, 혹은 진리를 추구하여 행복의 상태를 명상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적인 활동과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지식, 덕성, 신앙이라는 지혜의 씨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씨앗을 받아서 키 성장시키면 인간회복이 가능하다는 낙관적 인간이해를 하고 있다(장성수.1989). 결국 인간이란 신의 피조물이며, 선택과 행위의 자유를 부여 받았으며, 지혜롭고, 정직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성령의 은총으로 매우 쉬운 일이라고 보았다.

3. 교육의 방법

코메니우스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식을 모든 방법(汎教育)을 통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신념을 줄기차게 주장하였다. 모든 사람이란 성별, 신분, 장애유무를 초월 한 모든 인간이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은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각자는 지능이나 언어의 발달, 관심과 흥미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5-6세에서 두뇌의 발달이 가장 쉽게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이를 교육적 개입의 적기로 보았으며, 실제 4-6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공동학교를 제창하였다.

공동학교란 함께 노래하고 놀면서 믿음과 풍습을 배우는 유희와 감각적 경험을 학습하도록 하는 곳인데, 이러한 집단교육은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진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단교육이 가능하며, 더욱이 집단의 다른 아동들은 상호 모방의 대상이 되고, 자

극의 대상이 됨으로써 교육효과가 좋을 뿐 아니라 아동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코메니우스는 "세계도회"라는 최초의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을 개발, 감각경험을 통해 사물을 보거나 느끼고 그 다음 언어로 배우도록 구성했으며, 교육방법론이 제시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기술"이라는 부제의 "대교수학"을 저술했는데, 괄목 할 만한 교육방법들은 다음과 같다(이숙중.1995).

- ①사물, 직관, 경험, 아동중심의 교육을 해야 한다.
- ②교육은 아동기부터 그리고 하루 중에서는 아침부터 실시해야 한다.
- ③교육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야 한다.
- ④사물이해를 위한 교수를 위해 교구, 자료를 준비하고 언어를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 ⑤아동의 지적충동과 학습의욕을 환기시키고 학습에 흥미를 갖도록 한다.
- ⑥자연이 순서에 따라 한 가지씩 완성되는 것처럼 아동교육도 한 가지씩 배우도록 한다.
- ⑦아동의 발달단계와 순서에 따라 앞서 배운 것이 뒤에 배울 것의 기초가 되도록 한다.
- ⑧교육방법은 쉽고 구체적인 것에서 어렵고 추상적인 것으로 진행해야 한다.
- ⑨교수내용은 현재생활과 미래생활에 가치가 있는 것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⑩교수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초로부터 특수한 사항으로 옮겨가야 한다.

4. 교육의 단계

코메니우스는 자연의 원리와 연령에 따른 인간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4단계의 학교교육을 주장하였다(장성수.1989). 우선 1기는 유아기(0 - 6 세)로서 모친학교, 유아학교를 말하고, 2기는 아동기(7 - 12세)로서 국어학교를 의미한다. 그리고 3기는 소년기(13 - 18세)로서 라틴어 학교를, 4기는 청년기로서 대학교육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단계는 자연의 질서를 강조 한 것이며, 자연의 질서가 교수법의 기반이 될 때, 다양한 지식이 조화롭고 쉽게 전달될 수 있고 상호관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해가 수월하다는 것이다. 코메니우스는 하나님, 인간, 자연의 상관관계의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교육을 위한 세학교 -자연의 학교, 인간의 학교, 하나님의 학교-를 제시하는데, 자연의 학교에서는 사물이 가르치고, 인간의 학교에서는 인간자신이 가르치며,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물들과 인간자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배우게 되는데, 자연원리에 입각한 교육이란 ①자연현상에 적당한 시기가 있으며, 인간의 학습에 있어서도 적당한 시기를 택해야 한다. ②자연은 사물을 만들기 위하여 먼저 재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학습에서도 먼저 재료를 준비한다. ③ 자연이 단계를 지키듯 학습도 이 방법에 따라 단계적이어야 한다. ④ 자연의 사물은 모두 그 근본

이 되는 뿌리부터 발생한다. 아동의 학습도 자연 그 자체에서 구해야 한다. ⑤자연은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 아동의 학습에도 생활가치 없는 지식은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⑥자연은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한다. 아동의 학습도 인내를 요구하며 무단결석을 해서는 안 된다. ⑦훈육의 방법도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숙중,1995).

5. 범교육론과 통합교육사상

코메니우스는 1645년부터 1670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인간사물의 개선에 대한 보편적 제언’(De rerum humanarum emendatione consultatio catholica)이란 책을 저술했는데, 모두 7권 - 1권 범각성론(Panergesia), 2권 범 빛의 길(Panaugia), 3권 범지혜(Pansophia), 제 4권 범교육학(Pampaedia), 제 5권 범언어론(Panglottia), 6권 범개혁론(Panorthosia), 7권 범훈계론(Pannuthesia)-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전에 1권과 3권을 출판하고, 나머지는 출판하지 않은 채 미완성작품으로 남겼다(정 건영, 1998).

그중 인간교육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철학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은 제 3권의 범지혜이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 한 것이 제 4권인 범교육론(Pampaedia)이다.

코메니우스는 ① 사물의 세계를 질서 가운데로 옮기고, ② 인간의 정신이 사물세계를 직시하게 하고, ③ 모든 백성들에게 정신의 사용과 사물의 합리적인 사용에 대하여 경고하는 세계개혁의 목표를 범교육론(Pampaedia)을 통하여 실천하려했으며, 그것은 곧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 즉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세계개혁을 위해 사물의 다양성과 차이점을 이해해야하는 인간이 잡다한 일들로 인하여 정신훈련에 소홀히 하는 문제, 언어의 혼잡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범지혜(Pansophia)이며, 범교육학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삶의 규범을 일깨우고, 연습하며, 훈련하기 위한 지침이다(강희천 외,1992). 따라서 범교육학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포괄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게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모든 사람(Omnes)에게 모든 것(Omnia)을 철저하고 완전하게(Omnino)교육하는 것이다. 물론 코메니우스도 인간에게 계급을 인정한다. 농부와 거지들, 미개인들과 왕족이나, 귀족들, 그리고 철학자들의 신분과 능력에 차이가 존재를 인정하나 근본적으로 범지혜를 배우는 일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없어서 어느 누구도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거나 제외되어서 안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이숙중,1995).

①신분차이는 서로의 관계가 잘 견지되도록 오히려 화해되어야 한다. 화해의 관계란 신분차이의 제거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해 계급투쟁의 제거를 의미한다.

②성별차이는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하고,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에 따라서 방법과 내용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천성적 재능의 차이는 잔존능력을 신장시켜야한다. 어떤 사물을 인식할 수 없는 맹인, 귀머거리들, 병어리들도 교육의 기회가 당연히 주어져야하며, 모든 인간은 신체와 정신적 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기능에서의 취약성은 다른 기능에서의 기능을 담당 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그러한 가능한 잔존능력을 신장시켜 인간의 동등성(同等性)을 실현하도록 교육해야한다.

④인간이 배워야 할 세상의 모든 것(Omnia)이란 자연(Physica)과 정신(Metaphysic), 그리고 초자연(Hyperphysic), 즉 세상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리고 신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며, 인간과 자연, 이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인간성의 모습, 즉 지성과 덕성과 경건성을 들어내는 능력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대교수학 24장).

⑤교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야하고,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모든 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코메니우스의 범지혜를 교육하는 학교는 ① 가르치고 배워져야 하는 일들, ②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일에 부름 받은 사람들(교사), ③ 학습의 도구들(책), ④ 공적인 연습을 위한 장소들(교실), ⑤ 연습을 위한 정해진 시간들(수업시간), ⑥ 스스로 배우기(자습), ⑦ 휴식과 방학 등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학교과정은 첫 단계에서는 단순히 사물에 대한 통찰을, 둘째 단계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통찰을, 셋째 단계는 목적과 사용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학급이란 동일한 학과목을 배우는 과정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학생들의 모임이며, 그들은 동일한 시간에 같은 규칙을 배우고 훈련받아 자신을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동일한 학급 내에는 초보자와 중급자 그리고 숙련자가 함께 하도록 함으로써 상호협력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러한 수업을 위해 학교는 '세계도해'(世界圖解)를 중심으로 가르치도록 했으며,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사랑과 부성적인 관계,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배려하고 모범을 보여주는 교사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코메니우스의 범교육사상과 방법 그리고 철학과 통합교육과 관련한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② 실천지향적 교육을 중시한다.
- ③ 놀이 중심을 통한 협력과 규칙을 익혀가는 학교교육
- ④ 알기 쉽고 유용한 교재의 개발과 활용
- ⑤ 완전하고 철저한 교사
- ⑥ 협동적 활동을 통한 교육
- ⑦ 부모교육의 중요성 강조

⑧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 한 교육과 훈련

⑨ 교육은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학교교육을 인간의 이성(ratio), 언어 표현력(oratio), 그리고 행동(operatio)을 개발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이며, 인간에게 아는 것(Sapere), 행동하는 것(Agere), 말하는(Loqui)방법을 가르쳐야하며, 학교(SCHOLA)라는 말은 S(지혜롭게: Sapienter, wisely), C(생각하는 것: Cogitare, to think), H(정직하게: Honeste, honestly), O(행동하는 것을: Operari, to work), L(말하는 것을: Loqui, to speak), A(영리하게: Argute, sagaciously)라는 의미로 보았다(이숙중.1995). 이러한 학교는 놀이와 같은 곳과 같아야하고, 공동의 협력을 생활화 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들은 곧 구체적인 실례들에 대한 형상의 모방이 필요하다. 특히 모방할 것(즉, 모형)이 없는 곳에서는 모방이 있을 수 없다. 지도(指導)가 없는 곳에서의 모방은 쉽지 않거나 혹은 확실하지 못하다. 모방(즉, 활용, 실천, 연습)이 없는 곳에서는 모방을 위한 지도와, 심지어 소용이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는 곧 장애아동들이 비장애아동들과 함께 통합교육에 입함으로써 모방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모방은 곧 확실하고 활용의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고려 할 때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과 철학은 통합교육의 내용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통합교육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고와 가치이었음을 알 수 있다.

III. 코메니우스의 범교육적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시사점

1. 한국 통합교육의 문제점

1)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평등한 존재이며, 누구나 가능성을 가진다는 입장에서 교육에 대한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장애인들은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와 불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아야 했으며, 그러한 인식은 사회생활의 면면에 스며들어있다. 그러나 많은 통합교육 관련 논문들과 저서들에서 거의 빠짐없이 지적되는 부분이 곧 장애라는 이유로 존엄성이 훼손당하거나 불균등한 교육기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학습하거나 생활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일반교사들을 포함한 일반학생과 학부모들의 차별적인 시각은 장애아동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교육가능성에 대한 신뢰감등을 훼손시키고 있다.

2) 공교육의 가치

공교육의 존재가치는 개개인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장차 사회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에 따라, 가정과 학교의 환경에 따라서 학습성과의 차이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지위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교육이 좋은 조건들을 통제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학습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잠재가능성을 신장 시킬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해야하며, 이를 고려한 보다 적절한 교육내용을 수월한 교육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장애아동들의 교육은 그들이 가진 잠재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고, 장차 함께 살아가야할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과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3) 학교교육제도와 교육과정

현행 한국의 학제는 복선형제도와 특수교육과 이원화된 교육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다분히 장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이원화된 학교체제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기본방식과 의식 함양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향후 사회생활에서 소외되거나 아주 낮은 경쟁력을 가지게 한다. 그러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의 하나가 교육과정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크게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일선학교 현장 학교에서 다양한 학습자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한계를 가진 대상의 한 집단이 곧 통합교육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경우이며, 그들은 그들이 가지는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특수한 조건들을 고려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학교교육내용들로부터 각종 시설과 설비, 각종 교과목을 보다 수월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각종 교재 교구들이 대부분 장애아동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일반학교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결국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통합교육을 위한 교원자질과 교수방법

통합교육의 질적 수준을 가늠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요인은 우수한 교사의 자질이다.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분 아니라 상황과 학습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합교육 교수-학습기법의 개발과 활용능력을 갖춘 교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성과정에서의 교육과정의 개선, 다양한 통합교육관련 현직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요구된다. 동시에 통합교육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학습자들의 특수성과 통합된 환경을 고려한 교육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적절히 편제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적용하는 일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외에도 통합교육에 필요한 각종 인적·물적 조건들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 급당·학교당·학생당·교과 당 단위교육경비의 문

제, 지원인력의 문제, 장학의 문제, 교사의 관련 지식의 문제 등이 있다.

2. 통합교육에 대한 시사점

코메니우스는 소위 “인간사물의 개선에 대한 보편적 제언”이라는 저술(모두 7권)을 통해

모두를 위한 교육을 주장했다. 특히 제 4권 “범교육론(Pampaedia)”에서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은 교육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러한 교육은 삶의 규범을 일깨우고, 연습하며, 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사람(Omnes)에게 모든 것(Omnia)을 철저히하고 완전하게(Omnino)교육하는 것이 곧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현대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 교육의 기회는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분리되어서 학습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다.

코메니우스는 농부와 거지들, 미개인들과 왕족이나, 귀족들, 그리고 철학자들의 신분과 능력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들이 배워야 할 범지혜는 차이가 존재해서는 안되며,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화로운 관계란 신분차이의 제거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가 통합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 학습하도록 하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도록해야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모든 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통합교육은 코메니우스의 범지혜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물에 대한 통찰과정과 사물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한 통찰을 거쳐 사물의 사용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도록해야하며, 이는 장애와 비장애를 초월한 통합된 환경에서 효과적이다.

코메니우스는 학급 내에는 초보자와 중급자 그리고 숙련자가 함께 하도록 함으로써 상호협력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통합교육은 다양한 학습자들이 다양한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이해를 하는 것이 곧 학습이며, 그들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특수성을 알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합교육은 실천지향적 교육이어야 하고, 놀이를 통한 협력과 규칙을 익혀가는 과정이어야 하며, 협동적 활동이 부단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코메니우스의 통합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통합교육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통합교육 관련법

헌법 제 31조에서는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하였고, 교육기본법에서는 신체적·정신적·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교육기본법 제 18조).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초·중등교육법 제 59조)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통합교육에 대한 법적 바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1994년에 통과된 특수교육진흥법 제 15조 ①항의 내용은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을 고려한다면 법제정 이전에 통합교육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협력하는 사회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①통합교육의 기본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게 교육받아야 한다는 범교육(汎教育)론적 입장에서 접근하도록 함은 물론 범지혜를 배우게 해야 하며, 직관적, 자연주의적 교수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교육의 장소와 내용 그리고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통합교육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②인간은 평등한 존재이며, 장애는 인간이 각자 가지는 특수성중의 하나 일 뿐이다. 코메니우스는 사회조직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싸움 대신 평화로운 인류공동체를 형성하려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교육은 지성과 도덕 그리고 신앙이 포함된 교육이어야 한다. 인간 내면에 내재하는 지성과 덕성과 경건의 씨앗을 계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통합교육은 모든 아동들은 근본적으로 합리적이고 우월한 이성적 존재로 성장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장애유무에 따른 차별교육이 존재 할 수 없으며, 교육의 내용 또한 지·정·의를 조화롭게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조정되어야 한다.

③코메니우스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의 모든 사물과 독특하게 구별되는 정신 혹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비록 지능이나 언어의 발달, 관심과 흥미가 다르다 하더라도 학교라는 집단 내에서 다양한 다른 학생들의 행동과 태도를 모방하면서 자연의 질서를 터득하고, 정신의 사용과 사물의 합리적인 사용에 대하여 이해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학습하고 생활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을 고려 할 때 통합교육은 장애아동들의 잠재력을 자연과 조화롭게 개발하는 노력, 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방법과 내용들이 개발되고, 그러한 과정들은 상호 협력과 모방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법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2) 통합교육 환경

교육의 효과에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통합교육정책은 특수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 중에는 통합교육의 기본이 되는 시설환경과 관련하여 특수학급이 설치된 모든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는 정책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라 학교장은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이러한 노력들은 곧 재정지원으로 연결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제2항).

이러한 시설 및 환경과 관련하여 코메니우스의 교육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협력하는 관계이어야 하며, 교육환경은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코메니우스는 인간이 배워야 할 것들은 세상의 모든 것(Omnia)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연(Physica)과 정신(Metaphysic), 그리고 초자연(Hyperphysic)이며,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인간성의 모습, 즉 지성과 덕성과 경건성을 들어내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보았다(대교수학 24장). 이러한 코메니우스의 사상은 통합교육환경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들은 서로 학습의 대상이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과 삶의 방식을 상호 이해하면서 실행해가도록 하는 대상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교육시설과 환경은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단계로부터 교육내용의 개선, 각종 보조자료의 개선과 교육-학습들은 통합교육에 적절하도록 재구성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②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하는 학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코메니우스는 학생들이 학습하고 활동하는 학급을 동일한 학과목을 배우고 함께 활동하는 장으로 보았으며, 학급을 통해 서로 결합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통합교육의 통합된 학급활동을 통해 동일한 시간에 서로 유익한 규칙을 배우고 훈련받아 자신을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하며, 동일한 학급 내에 장애아동과 비 장애아동, 초보자와 중급자 그리고 숙련자가 함께 하도록 함으로써 한 학급 내에서 상호협력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각자 사회와 인류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교육이며, 때문에 각자에게 적합한 교육내용과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통합교육에서 개별화 교육과 최소제한환경 그리고 수월한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해야한다는 입장에서 효과적인 통합교육의 의미를 이미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습들은 통합된 방법과 내용으로 구성하고, 일부 특별한 분리교육을 요하는 내용과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리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별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③특수교육환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코메니우스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생각은 장애인들에 대한 각별한 것이었다.

모든 아동은 독특한 신체적, 지적, 정서적, 심리적 특성을 지닌 고유한 개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들이 더욱 존엄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은 곧 교육에 의해서이고, 따라서 교육은 더욱 존엄한 가치로운 삶으로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일반교육 체제는 공립학교에 출석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일차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에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이중구조가 아닌 일반교육 주도(Regular Education Initiative; REI)의 일원화된 통합교육 접근과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Winzer, 1993, p.384).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인간애교육이 중요시되어야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④ 학교환경은 물론 지역사회와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통합을 위한 시설환경의 구축되어 최소제한환경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코메니우스는 범교육론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학습에서는 결코 동등해야하며, 신체적·정신적 성숙도에 따라서 교육의 방법과 내용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되 차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대체적 환경이 제공되어야하며 궁극적으로 최소한의 제한조건으로 제시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기관을 포함한 일반 공공기관과 국가단위의 노력이 집중되어야하고, 이러한 노력들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3) 상호 협력과 함께하는 교육

현행 통합교육정책들은 장애인식의 수준이 고양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장애 이해교육 및 장애 체험활동 강화를 위하여 교과서의 장애관련 내용 교육의 충실을 기하고, 학기별 1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체험활동 실시,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및 장애인시설과의 자매결연을 권장하고 있다.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 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6호)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초·중등교육법 제59조),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제1항)고 명시함으로써 학생이 원 할 경우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①학교교육기관의 경영자들은 물론 일반 공공기관의 지도자들에 대한 장애와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②통합교육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환경기준이 만들어지고, 학교교육기관을 포함하여

관련 기관, 관련 시설 등에 확대 적용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③이러한 기본조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4)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

통합교육에서 장애아동들로 하여금 사물을 쉽게 이해하고 지적충동을 일으키게 하면서 흥미를 가지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적절한 교재를 개발하고 필요한 도구를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특수교육 보조요원의 확보, 개별화 교육 계획에 다양한 관련자들의 협력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 보조자들의 협력적 교수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계획단계에서부터 전반적인 과정에 적용되는데, 특수교사, 일반교사, 치료 및 직업교사, 학부모등은 물론 보조인력 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지난 2003년부터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5년 1학기 현재 3,628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 중 1,351명은 특수학급에 그리고 277명은 통합학급에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음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더욱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희천 외(1992). **기독교 교육사**, 서울: 교육 목회.
- 권요한. 이만영(2002), 통합교육에서의 교육과정 조정요인. **특수교육학 연구**.
- 권요한(2001) "통합교육에 있어서 교육과정 편성의 문제. **경남 특수교육연구회**.
- 김남순(2001). 한국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통합교육 운용방안연구. 대구대 박사학위논문.
- 김병하(2003). **특수교육의 역사와 철학(개정판)**. 대구대학교출판부.
- 김윤옥(1997). 특수아동 완전통합교육을 위한 미국의 동향과 한국적 과제.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자료 제4집**.
- 김정권 외 역(2001). **민주주의와 [특수]교육**. 도서출판 특수교육.
- 노경선(2002), 초등학교통합학급 특수아동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실태. 공주대 특수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박승희(1999), 2000년대 한국 특수학급의 정체성과 발전방향. **특수교육학 연구**. 33(2).
- 박승희(1999). 일반학급에 통합된 장애학생의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적 수정. **특수교육학회 학술연구 발표대회**.
- 박종열(1969).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 장성수(1989). 코메니우스의 교육관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서울 경인특수학급교사연구회 편(2006). **통합교육지원 프로그램**. 학지사
- 손인수(1991). **교육사 교육철학 연구**. 서울: 문음사.
- 안건상(1985). **코메니우스의 범교육론**. 을지사.

- 안 상원(1985). *교육사 및 교육철학연구*. 서울 : 재동 문화사.
- 양인숙(2002). *통합학급 장애유아를 위한 개별화 교육계획의 개발 및 운영실태*. 공주대 특수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윤집룡(1997). 중도장애아 교육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제 4회 이화특수교육 학술대회: 중도장애아 교육의 기초와 방법론(29-49). 이화여자대학교.
- 이숙중(1987). 존 아모스 코메니우스의 신학적 교육사상. *현대와 신학*. 11집, 연신원
- 이숙중(1989). 코메니우스의 자연관과 새교수법에 관한 연구. *신학 사상*.
- 이숙중(1995)분석 교수학. 교육과학사.
- 임안수(2004). 장애아동 통합교육의 실천과제. *한국특수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 정건영(1998).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 *교육학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하우
- 정영수(1998). 근대 자연주의와 교육. *교육학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하우
- 정용석(2004). 한국 통합교육 전개에의 시사: Dunn과 MacMillan 등의 연구에 기초하여. 연세대 논문.
- 특수교육연차보고서(2004.2005). 교육인적자원부
- John.Amos.Comenius, The Great Didactic. 정학실역(1987). *대교수학*. 교육과학사.
- 中村滿紀男·岡典子·조원일(2005). 완전통합교육론과 저출현 장애아교육의 모순-미국 시각장애아교육의 관점에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2). 301-322.
- Byung Ha Kim 외 3인(2001). The Perception of Korean Special Education Teachers on Full-Inclusion. *Journal of Asia-Pacific Special Education*, 1(2), 111-129.
- Dunn, L.M.(1973). *Exceptional children in the school*.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aton, Inc..
- Mazurek, K. and M. A., Winzer(1994). *Comparative Studies in Special Education*. Washington, D. C. : Gallaudet University Press.
- Poon-McBrayer, K.F.(2005). Full inclusion for children with severe learning difficulties in Hong Kong : ideology and reality. *Journal of International Special Needs Education*. vol.8, 19-26.
- Skrtic, T.M., Harris, K.R., and Shriner, J.G.(2005). *Special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Denver, Colorado, Love Publishing Company.
- <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m=all&articleID=b21k3004b>
- <http://cafe.daum.net/sandfol>
- <http://cafe.daum.net/pasata7>

A Study on the relation pampaedia with Fully Inclusive Education in Korea

Kim, Nam-Soon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e importance of special educational policy and the necessity of research herein have been high-lighted due to the expansion of social and public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and the unitary.

The purposed of this study were to build and develop the theoretical basis on full inclusive education at korea. so this study were analysis of full inclusive education method and philosophy in korea special education.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As the full inclusive education is generally collaboration with student, parents and school, community.

collaboration is the essential feature of inclusive school communities, in which everyone belongs and participates in meaningful activities, affiliations and alliances among community members are facilitated, and mutual support is the norm.

2. school professionals need to become adept at identifying the functions of students' behavior and developing the curricula and supports to help students learn prosocial ways of getting their needs met.

3. at issue is the entitlement of each child to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at right cannot be realized unless each child has a successful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xperience.

4. For a successful fully inclusive education, teacher training is necessary.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basic research and planning in special education as one of the policies of special education which meets the social demands of the 21st century for national special educational institutions.

key words : special educational, full inclusive education, pampaedia, Didactica Magna.

논문 접수: 2006. 10. 30 심사 시작: 2007. 11. 20 게재 확정: 2007. 3. 23